

‘여야 대표 회담’ 실무협상 재개…국힘, 생중계 강조 배경은

‘채상병 특검법 리스크’ 최소화 ‘한동훈이 반대’ 오해 사전 차단 ‘이면 합의’ 의심 당내 반발도 부담

국민의힘이 26일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언론에 공개된 가운데 진행 하지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한 대표가 이날 회담 공개가 회담 개최에 앞서는 최우선 요구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유연하게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여당의 속내는 회

담 내용을 공개하면 좋겠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공개 회담’을 요구하는 배경은 회담 의제로 거론되는 ‘채상병특검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제보 공작 의혹’을 특검 대상으로 포함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 이후 특검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그런데 회담이 비공개로 이뤄질 경우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논리와 입장이 가감 없이 전달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합의가 안 될 경우 ‘한 대표가 특검법에 반대했다’는 민주당의 여론전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는 게 당 지도부의 인식이다.

게다가 비공개 회담의 특성상 발표 내용과 무관하게 양측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면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면 당내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여야는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순연된 대표 회담 일정과 방식을 조율하고자 이날 실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박정화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떻게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도 “회담 전부를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며 “그렇게 됐을 때 그 과정과 차이점,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양당의 관점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회담에서 누가 민생을 말하고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지 국민이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굳이 생중계를 피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속한 발의를 요구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발의 자체가 대표회담과 별개 사안이라며 당내 의견 수렴이 먼저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장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날짜를 정해 놓고 ‘오늘까지 안 하면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면서 “대표회담을 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전략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장 최고위원은 “10명, 20명 (여당) 의원이 발의할 수 있겠지만, 당내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발의하는 것은 분열만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시한을 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엉뚱하다”며 “한 대표가 당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이 과정을 마치면 결론을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네번째)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이재명, 유연한 리더십 보여야”

“강성 지지층, 다양성 존중 필요…김경수, 민주당 큰 재산”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18 전당대회에서 85% 득표율로 연임한 데 대해 “그 과정에서 국민적 눈높이와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9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는 게 크게 국민적 감동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내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당시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이 당을 장악할 때 평균적으로 60~70%의 지지율로 당 대표가 되고, 당내 비주류의 몫을 인정하며 당을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또, “당 대표가 된 것 자체가 이 대표에게 무슨 큰 성취라고 볼 수는 없다”며 “대통령

이 되겠다고 한다면 정부·여당에 도와줄 건 도와 주겠다고 하는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민주당이 각종 탄핵소추안 반복해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의 강한 매인데, 일상적으로 치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는냐”며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것이냐”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향후 당내 역할론에 대해서는 “김 전 지사 자체가 민주당 역사의 한 부분이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신뢰받는 참모였다”며 “경남지사 때 보여준 도정 운영 등을 보면 충분히 민주당의 큰 동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김원이, 김산업 육성 등 5개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국회의원이 26일 김 종자 육성 및 김산업 진흥을 위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산업 육성법 개정안은 김과 김 가공품의 기술 개발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김산업의 첫 단계인 종자 배양부터 이후 김 양식·가공·수출 등 전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지방의대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의 졸업 후 취업현황을 국가가 조사하여, 의료인력 양성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지방의대 졸업생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취업한다는 언론보도는 잇따르고 있지만, 졸업 후 근무현황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지방 의사인력 확보 정책과

연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가족돌봄 휴직·휴가의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양육을 위해 가족돌봄 휴직·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휴가 사용 요건으로 가족의 장애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가정의 보호자는 돌봄 공백시 회사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가정 보호자의 돌봄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원이 의원은 “김 종자의 육성 등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김산업 진흥을 돕고, 김수출 확대로 목포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인재영입위원장, 국힘 고동진·민주 정성호 인선

민주, 윤 정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위·의료대란 특위 설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외연 확장을 위한 인재영입위원장 인선을 마무리 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초선인 고동진 의원을 임명했다. 삼성전자 대표를 지낸 고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직접 영입했다.

국민의힘은 또 ‘호남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배숙 의원 (5선·비례대표)을,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에 오신환 당협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주진우 의원 (초선·부산 해운대갑)이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당 인재위원

장으로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정성호 의원을 임명했다.

인재위원회는 지난 총선 당시 이 대표가 위원장을 겸직할 정도로 당에서 비중을 두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중량감 있는 5선 중진인 정 의원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재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3선 김병기 의원을 임명했다.

이 대표는 또 5선 안규백 의원을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으로 임명했다. 수석사무부총장에는 임호선 의원을, 당 대표 수행실장으로는 김태선 의원을 각각 낙점했다.

당 안팎에서는 정성호 인재위원장과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이 대표적인 친명 중진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친정체제’ 구축에 방점을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편 민주당은 당내에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김병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으로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임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한 이 대표가 병상에서 당직자들과 상의를 거쳐 두 개의 위원회 설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